

• 타운뉴스 칼럼

서궁춘원(西宮春怨)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무엇인가를 찾다가 장롱 서랍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다. 아주 예쁜 곱에 들어 있는 작은 돌 도장이었다.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지만 그 누군가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히 중국인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크기라야 밀면의 가로, 세로가 각 2cm인 정사각형에 높이가 8cm밖에 안 된다. 까만 돌 도장의 몸체 네 면 가운데 한 면에는 초서체 작은 글자로 무엇인가 새겨져 있었다. 글자가 작기도 하지만 워낙 휘갈겨 쓴 글씨인지라 도저히 읽을 재간이 없었다. 평소 한시를 즐겨 해독하고 난해한 문장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해독이 가능한가 물었다.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을 해 왔다.

西宮夜靜百花香(서궁야정백화향) 서궁의 고요한 밤, 꽃향기 그윽한데  
欲捲珠簾春恨長(욕권주렴춘한장) 발 걸어 올리려니, 봄의 한(恨) 솟구친다.  
斜抱雲和深見月(사포운화심견월) 비파 옆에 껴안고, 한숨 쉬며 달 보니  
朦朧樹色隱昭陽(몽롱수색은소양) 몽롱한 나무들이 소양궁을 가리킨다.

한나라 12대 황제인 성제(成帝)의 총애를 받던 후궁 반첩여(班婕妤)는 조비연(趙飛燕)의 등장으로 황제에게 버림받은 후, 태황태후를 모시고 서궁(장신궁의 별칭)에 살았다. 서궁춘원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시는 서궁에 사는 반첩여가 어느 봄밤,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조비연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한숨짓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참고로 소양궁은 조비연이 살고 있어 임금의 자주 머무는 곳이다.

친구의 답글을 받고 반첩여라는 여인이 궁금해졌다. 반첩여의 본래 이름은 '반염'이다. 첩여는 이름이 아니고 비빈의 첩계 중에 하나이다. 반첩여는 성제가 황제에 오른 직후 궁녀로 입궁하여 소사(少使)에 머물다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 곧바로 첩여(婕妤)에 책봉된다. 비빈들의 품계는 황후를 제외한 11단계가 있는데 소사는 가장 낮은 11등급의 궁인이고 첩여는 소의(昭儀) 다음의 2 번째 품계로 상경과 열후와 같은 작위를 받았다. 9단계를 한 번에 넘은 것으로 보아 그녀에 대한 성제의 총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반첩여는 세월이 흘러 미색이 쇠퇴하게 되었다. 조비연과 그 여동생 조합덕이 후비로 입궁하여 성제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조비연은 수려한 용모와 유연한 몸매, 출중한 춤 솜씨로 성제의 사랑을 받았다. 조비연은 허황후, 반첩여와 황제의 사랑을 나누어 갖기 싫었다. 황제의 사랑을 등에 업고 이들을 내쫓기 위해 노력했다. 허황후는 폐위되어 소태궁에 연금되었다가 또 다른 죄명이 더해져 독약을 마시게 된다.

결국 반첩여도 허황후처럼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반첩여는 무기력하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제가 듣기로, 죽고 사는 것이 명이며 부귀는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정도를 지켜도 복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사악한 짓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귀신이 알고 있다면 신하의 도리에 벗어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귀신이 무지하다면 호소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성제 앞에서 화와 복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숨김없이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이 명이며 부귀는 하늘에서 내려주는바, 인간은 정도를 지키다 해도 복 받을 것이란 확신이 없는데, 하물며 사악한 짓을 한다면 두말할 나위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성제는 자신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황금 1백 근을 내어주며 반첩여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성제는 그 뒤로 반첩여를 찾지 않았다. 반첩여는 상황 파악이 빨랐다. 성제가 비록 풀어주었지만 교만과 질투의 화신인 조 씨 자매가 자신을 가만들 리 없다고 판단해서 성제에게 장신궁(서궁)에서 태후를 모시겠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작스런 성제의 죽음으로 조비연과 조합덕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조합덕은 자결하고 조비연은 서민 신분으로 추락했다가 그도 역시 스스로 목숨을 거둔다.

조 씨 자매의 몰락을 배후에서 조정한 사람은 놀랍게도 서궁에서 태황태후를 모시던 반첩여였다. 최후의 승자 반첩여는 홀로 한성제의 능묘를 지키며 그를 추억하는 것으로 일생을 보냈다. 반첩여는 비록 황제의 사랑은 오래 받지 못한 한 많은 여인이었지만 후대 많은 문인들의 사랑을 받는 시인으로 이름이 남았다.

4월의 어느 봄밤, 도장에 새겨진 옛 시인의 시를 해독하며 중국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았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1467호 목차

타운뉴스 칼럼	13
커뮤니티 소식	15,17,19
나는야 1.5세 아줌마	20
법률	21
여행	23
세상에 이런 일이	27
전문인 칼럼	28,29,43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9
숨은그림 찾기,답/날말 퀴즈,답	30/56,30/56
건강	37,43
깔깔	38
부동산/경제	39
한인업소 안내지도	44,46,58,60,62
요리	45
그림여행	47
종교	49
연예	51,53
안내광고	54,55
Domestic	56
여성	57,59

기주장익시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OoH! PUPPY  
한국식 애견미용  
Grooming  
15329 E. Imperial Hwy. La Mirada, CA 90638 562.947.4530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8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William Wang, DDS  
Nguyen Diemphi,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ODS, KADA 회원